

## 분과발표 I

# 대학생의 연애 경험을 통한 사회적 관계 맺기에 관한 연구

이 은 주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외래강사)

## Abstract

이 연구는 관계적 포기 및 개인주의적 문화를 요구받는 청년과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현상 속에서 청년기인 대학생의 사회적 관계 맺기 양상이 향후 다양한 사회현상과 맞물려 사회적 행동으로 지속화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대학생의 연애 경험을 통한 사회적 관계 맺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학생들은 연애라는 사회적 관계 시작 및 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사회적 관계 시작의 어려움으로 ‘연애 하지 않음과 비혼의 선택’, ‘안하는 연애가 아닌 못하는 연애’, ‘자기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사회적 관계 유지의 어려움으로 ‘취업과 연애 사이에서의 갈등’, ‘미리 준비하는 이별’, ‘데이트 비용에 대한 고민’을 경험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대학생들의 연애라는 사회적 관계 시작과 유지에 개인주의적 문화, 수동적인 태도, 사회불안감, 자기노출 부족, 썸문화, 노동시장 불안,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다양한 요인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기의 사회적 관계 맺기의 어려움은 생애주기별 발달과업 성취에 어려움을 초래해서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지고 관계 포기, 개별화라는 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저출산·고령화 사회라는 역기능적 순환 형태를 보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keyword: 대학생(university student), 연애 경험(experience of love),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관계 맺기(making relationship)

## I. 서론

청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자아정체성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되는 시기이다. 사회적 관계란 연애를 포함한 다양한 대인관계를 의미하며, 향후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사회구조적 변화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관계성 추구보다 포기라는 좌절감을 먼저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청년과 관련된 이미지가 ‘포기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나열이 먼저 연상되는 현상이 있다. 우선 인간발달 과업 중 경험해야 할 생산성 또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 명명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결혼은 포기해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 손꼽히고 있다. 세부적으로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기존 3포세대에서 집 장만과 인간관계를 추가한 5포세대, 꿈과 희망을 추가한 7포세대를 이어서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는 N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 혼자 밥이나 술을 먹는다는 ‘혼밥’과 ‘혼술’, 혼자 영화를 본다는 ‘혼영’과 같은 표현도 자주 쓰이면서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의 빈곤 또는 개인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청년은 미래 지향적 계획과 관련된 것에 대한 포기,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단절을 요구받거나 실감하고 있다. 더불어서 한국은 사회적 관계의 신뢰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자본지수 또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서(현대경제연구원, 2014),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포기하는 세대와 관계의 빈곤을 반영하는 신조어 사용은 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들과 맞물려서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의미의 미혼보다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비혼이라는 표현에 호감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 1인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전체 가구 수의 27.8%에 해당하고 있으며, 감소되는 혼인건수와 함께 출생건수 또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17).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위축은 개별화를 통해 사회적 고립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인 사회적 관계를 통한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청년의 사회적 관계 맺기 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비혼, 만혼,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주제에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청년 대학생의 연애 경험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기의 연애라는 사회적 관계 경험은 배우자 및 결혼을 선택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Erikson, 1968). 그러나 대학생의 연애 경험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대학생의 사랑에서의 관계적 특성 또는 심리적 특성과 연애 관계를 살펴보는(강진경·정태연, 2001; 이인재·양난미, 2015), 연인 관계 유형 또는 질투와 관련된 연구(이수경·강혜자, 2006; 정여주 외, 2011), 애착과 연애관계(양난미·배성희, 2017) 정도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생의 연애 경험을 통한 사회적 관계 맺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의 사회적 관계 맺기 양상은 향후 다양한 사회현상과 맞물려 사회적 행동으로 지속화될 수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 맺기 양상을 이해하고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청년기 발달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아동기 이후부터 20대 초중반까지를 청년기라고 할 수 있으며, 20대 초 중반은 성인 초기로 분류되기도 한다. 청년기는 자아성장을 이루는 시기로 대학시기에 자아정체감이 더욱 안정화된다(조복희 외, 2011). 자아정체감의 안정은 자아의 확신으로 이어지고 타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 청년기에 의미 있는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감 및 지지를 바탕으로 친밀성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고립감이라는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Erikson, 1964). 따라서 청년기의 연애 경험을 통한 사회적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2. 사회적 관계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에 소속되는 인간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다양한 관계들은 가족을

포함한 의미 있는 타인, 그 외 불특정 다수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표현되는데,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구조 내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역할이론과 필요한 자원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는 교환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은주, 2011). 사회적 지위에 맞는 적절한 역할 수행과 상호보완적 자원 교환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관계가 원활하게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들은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를 나타내는데, 청년기 이전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청년 초기인 중·고등시기에는 동성 친구들과 의미 있는 관계 맺기를 원하고 청년 후기인 대학생 시기에는 연애 대상과 낭만적 관계를 원하게 된다(Hazan & Zeifman, 1994). 이렇듯 가족에게서 의미 있는 타인들로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는 인간발달 단계 및 발달과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청년기의 사회관계적 성향은 자아개념과 직접적 영향이 있는데, 나에 대한 이해와 신념 체계를 의미하는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정적인 관계이다((박순정, 1996; 정민·정안나, 2009). 따라서 청년기의 긍정적 자아개념 확립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및 분석

이 연구는 대학생의 연애 경험을 통한 사회적 관계 맺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에 걸쳐서 서울 소재 D대학과 S대학에서 성, 사랑, 결혼 관련 교양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 총 192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자료는 자신의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이야기 형식의 텍스트로 적어내도록 하였다.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하였으며, 강제성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무응답 또는 주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164개의 이야기 형식의 텍스트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중심주제분석 방법은 분석자료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중심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Braun & Clarke, 2006).

####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대학에서 성, 사랑, 결혼 관련 교양수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수강하고 남녀대학생들로 총 여성 52명, 남성 112명으로 총 164명이다. 조사대상자는 현재 연애 유무와 상관없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대학생의 전반적 연애 경험을 통한 관계 맺기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므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전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IV. 연구결과

이 연구는 다양한 신조어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맺기의 포기 또는 관계의 빈곤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생의 연애 경험을 통해 향후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관계 맺기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사회적 관계의 시작과 유지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사회적 관계 시작의 어려움에서 ‘연애 하지 않음과 비혼의 선택’, ‘안하는 연애가 아닌 못하는 연애’, ‘자기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사회적 관계 유지의 어려움으로 ‘취업과 연애 사이에서의 갈등’, ‘미리 준비하는 이별’, ‘데이트 비용에 대한 고민’을 경험하고 있었다.

### 1. 사회적 관계 시작의 어려움

대학생들은 사회적 관계 시작의 어려움으로 ‘연애 하지 않음과 비혼의 선택’, ‘안하는 연애가 아닌 못하는 연애’, ‘자기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연애 하지 않음과 비혼의 선택

연애라는 사회적 관계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비혼 삶의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연애 상대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어서 사회적 관계 맺음이 원활하지 않았다. 연애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연애를 원하지만 비혼을 선택했다면 사회적 시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인 게 편해서 굳이 연애를 안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연애하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하는 나. 연애와 결혼은 꼭 해야 하나?

나는 비혼주의자이다. 상대는 결혼을 진제로 한 관계를 원하고 내가 비혼주의자면 만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비혼주의자는 비혼주의자끼리만 연애해야 하나.

#### 2) 안하는 연애가 아닌 못하는 연애

연애를 하고 싶지만 연애 대상을 만나거나 관계를 이어 나가는 것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한 번도 연애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이성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시작하고 이어가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요.

이성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자친구는 어디서 만나나요?

한편으론 연애의 시작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맡기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낭만적인 사랑을 기대하다보니 사회적 관계 맺음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개팅, 미팅 같은 목적성이 있는 인위적인 만남보다 자연스러운 만남 또는 운명적인 만남을 기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3) 자기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연애가 시작되면 상호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자신의 정보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자기노출 단계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적 문제 또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노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발생함으로써 ‘썸’이라는 모호한 관계를 넘어선 지속적인 관계 맺기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아서 처음에 마음을 열지 않고 천천히 마음을 열어서 썸 탈 때 아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나의 개인적인 것을 공개해야 하고 상대방이 그 것에 대해 나에게 지적이나 간섭하는 것이 싫어요. 어느 정도 자유를 원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연애를 기피하게 됩니다. 어찌죠?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그냥 친한 정도로 지내는 것이 감정 소모도 없고 상처도 안 생겨서 편한 거 같은데, 정상인가요?

또 자기노출을 하더라도 실제의 자신이 아닌 이상적 자기를 노출함으로써 자아개념과 괴리 상태를 경험하고 상대방과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고 호감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장 좋은 모습을 연기한다.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완전 평범.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하면서 이성 친구를 만나야 하나. 이성을 만나게 되면 그 친구로 인해 성격이 바뀌게 되고 원래의 내 모습이 아니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

## 2. 사회적 관계 유지의 어려움

대학생들은 ‘취업과 연애 사이의 갈등’, ‘미리 준비하는 이별’, ‘데이트 비용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 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 1) 취업과 연애 사이의 갈등

사회생활을 앞둔 대학생으로서 취업관련 준비와 연애를 병행하면서 다양한 갈등 상황 또는 이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졸업반인 경우 취업이라는 달성해야할 목표가 뚜렷한 상황에서 연애를 통한 사회적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진공, 미래 준비 등)과 이성을 만나고 연락하는 시간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다가 결국 헤어짐.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가.

4학년이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여자 친구는 더 만나고 더 놀고 싶어 한다. 어찌나? 나는 너무 바쁜데, 상대방이 만나자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저 해야 할지, 일주일에 몇 번쯤 만나는 것이 좋은가?

4학년 졸업반이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롭게 취업준비를 해야 할지, 연애와 병행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 2) 미리 준비하는 이별

연애라는 사회적 관계는 맺고 있지만 오래 유지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관계의 끝을 먼저 의식하고 연애를 하는 상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방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시작하지만 사랑이 식는 속도가 빨라서 관계가 서둘러 종결되는 형태이다 보니 연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는 금사빠, 금사식이라 연애를 오래 못하는 것이 고민이에요.

연애를 안 할 때는 하고 싶고 하면 금방 마음이 식어요.

연애를 할 때 항상 헤어지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별을 대비하고 있는 나. 비정상인가.

### 3) 데이트 비용에 대한 고민

대학생은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및 횟수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친구가 직장인일 경우 남자 대학생의 내적 갈등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만의 기념일을 챙기지 못한 미안함 등으로 관계에서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자보다 내가 데이트 비용을 더 내고 싶어 하는 입장이라 돈이 없을 때 만나는 게 꺼려진다. 연애 시 돈 계산은 어떻게 하죠?

여자 친구는 직장인이고 나는 학생. 여자 친구들의 친구들은 남친이 직장인이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나의 경우 돈이 없어 기념일 등을 못 챙긴다. 근데 여자 친구는 기념일을 챙기고 싶어 하고 친구들의 남자 친구들이 해준 선물을 저에게 말하면서 약간 부담을 주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직장인 여자 친구와 취준생 남자친구의 연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데이트 비용 분담 및 횟수는 얼마가 적당한가.

데이트 비용이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여자 친구는 직장인이라 입장이 다르다 보니 말하기 꺼려진다.

##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관계적 포기 및 개인주의적 문화를 요구받는 청년과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현상 속에서 청년기인 대학생의 사회적 관계 맺기 양상이 향후 다양한 사회현상과 맞물려 사회적 행동으로 지속화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대학생의 연애 경험을 통한 사회적 관계 맺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연애라는 사회적 관계 시작 및 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 시작의 어려움 측면에서 ‘연애 하지 않음과 비혼의 선택’, ‘안하는 연애가 아닌 못하는 연애’, ‘자기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의 시작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학생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시도를 하지 않거나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거부하는 ‘연애를 하지 않음과 비혼의 선택’으로 개인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으론 ‘안하는 연애가 아닌 못하는 연애’로 연애는 하고 싶지만 사회적 관계의 시작과 유지 경험 부족 및 관계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와 운명적 만남을 기대하는 낭만적 사랑에 의해 연애라는 사회적 관계 맺기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의도적 단절 또는 시작의 어려움은 청년기에 달성해야 할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애정을 주고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 충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청년기의 발달과업 중에 하나인 자아정체성 은 다양한 관계경험을 통해 관계적 자기를 형성하면서 영향을 받는데 (Greenberg & Johnson, 1988), 사회적 관계 부족은 청년기 발달에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발달적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때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음(McIntosh & Martin, 1992)을 감안할 때 사회적 관계 맺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자신의 감정을 비롯한 자기노출도 관계의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Fitzpatrick, 1987; 박혜련·손은정, 2012), 대학생들은 ‘자기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관계 시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대학생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 부족과 자아개념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적 자아가 아닌 이상적 자아를 노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인관계에서의 진정한 자기노출 회피는 사회불안감과 관계성이 있는데, 사회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회피적 태도를 보이고 상대방에게 자신이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태도를 가짐으로써(Leary, Kowalski, & Campbell, 1988) 실제적 자아노출을 꺼리게 된다.

이렇듯 연애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자기노출을 꺼리다 보니 연애보다는 ‘썸’이라는 모호한 상태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썸(something)에서 파생된 ‘썸’문화는 혼밥, 혼영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 확산으로 인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감정노동 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지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부산대 여성연구소, 2011).

한편 한국의 낮은 사회자본지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사회불안감 및 개인주의 문화 확산은 지속적으로 대학생의 자기노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사회적 관계 맺기의 어려움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관계 유지의 어려움 측면에서 ‘취업과 연애 사이에서의 갈등’, ‘미리 준비하는 이별’, ‘데이트 비용에 대한 고민’을 경험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감에 의해서 연애관계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데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졸업반인 경우 심리적 부담감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결혼과 취업 모두를 미성취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 수준도 매우 높지만 취업은 했지만 결혼미성취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도 크다는 점(김재희·박은규, 2016)을 미루어볼 때, 청년이 연애와 취업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생들은 연애를 하면서 관계 갈등이 없어도 ‘미리 준비하는 이별’ 태도를 가짐으로써 장기적 관계로 이어나갈 수 있는 안정감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둘의 관계보다는 개인화 측면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장기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헌신과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 또는 관계상실에서 오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로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 비용 지출에 대한 고민은 분석 자료에서 남자임을 밝힌 대학생이 많았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여성들이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Frezier & Esterly, 1990) 사회적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기대에 따른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이 금전적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 맺기에 부담감으로 작용되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연애라는 사회적 관계 시작과 유지에 개인주의적 문화, 수동적 태도, 사회불안감, 자기노출 부족, 썸문화, 노동시장 불안, 성역할 고정관념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기의 사회적 관계 맺기의 어려움은 생애주기별 발달과업 성취에 어려움을 초래해서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지고 관계 포기, 개별화라는 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저출산·고령화 사회라는 역기능적 순환 형태를 보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한계는 청년기인 대학생의 사회적 관계를 연애 경험에 한정하여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탐색과 남녀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분석으로 성별 특성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관련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관계적 포기 및 개인주의적 문화 요구받는 청년과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상 속에서 청년기인 대학생의 연애 경험을 통한 사회적 관계 맺기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역기능적 순환 형태를 확인하고 사회적 변화와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진경·정태연(2011). 사랑에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개인적 및 관계적 특성에서의 차이: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1), 1-21.
- 김재희·박은규(2016).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3), 257-284.
- 박순정 (1996). 자아개념이 대인관계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박혜련·손은정(201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



- 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083-1099.
- 부산대 여성연구소(2011). 왜 아직도 젠더인가?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양난미·배성희(2017).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연애관계 만족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56(1), 339-379.
- 오세일·박태준(2016). 대학생의 연애와 행복. **한국사회이론학회**, 50, 207-248.
- 이수경·강혜자(2006). 연인관계의 질투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 대처반응 및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743-765.
- 이은주(2011).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이인재·양난미(2015). 대학생의 자존감과 연애 관계만족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1), 179-198.
- 정민·장안나(2009).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669-681.
- 정여주·두경희·김창대(2011). 대학생 연인관계 유형 검사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2(1), 219-241.
- 조복희·도현심·유가효 (2011). 인간발달. 교문사.
- 현대경제연구원(2014).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 통계청(2017). 1인가구 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I00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I001&conn_path=I2).
- 통계청(2017). 인구통태건수 및 동태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conn_path=I2).
- Clark, J. V., & Arkowitz, H. (1975). Social anxiety and the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36(1), 211-221.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itzpatrick, M. A. (1987). *Marriage and verbal intimacy*. In V. J. Derlega & J. H. Berg(Eds), *Self-disclosure: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131-154). New York: Plenum.
- Frezier, P. A., & Esterly, E. (1990). Correlates of relationship beliefs: Gender, relationship experie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331-352.
- Greenberg, L. S. & Johnson, S. M. (1988). *Emotionally Focused Therapy for Couples*. New York: Guilford Press.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151-177)*. London: Jessica Kingsley.
- Leary, M, R., Kowalski, R, M., & Campbell, C, D. (1988). Self-presentational concerns and social anxiety: The role of generalized impression expectanc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3), 308-321.

- 
- McIntosh, W. D., & Martin, L. L. (1992). *The cybernetics of happiness: The relation of goal attainment, rumination, and affect*. In M. S. Clark (Ed), *Emotion and social behavior*(pp. 222-246). Newbury Park: Sage.
- Sternberg, R.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